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3-50호 / 08월 25일

중국,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 가속화

1. 개요

- 과거 가격 중심의 비교우위에서 벗어나 품질, 안전성, 위생 등이 국제농산물시장의 핵심이슈가 됨에 따라 중국은 최근 들어 자국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현재 WTO에서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 수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농업의 주요 목표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에 있었으나, 1996년 연간 5,000 Kg의 식량생산 목표를 달성한 이래로는 품질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가 농업정책의 새로운 목표로 전환되었음.
- 이같은 변화는 WTO 가입에 따른 지속적인 시장개방 확대 및 세계경제와의 일체화 속에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농산품의 품질과 국제경쟁력』이라는 보고서¹⁾에서 중국 농산품의 수출경쟁력 저하요인과 농산품 품질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함.

1) 中國社會科學院 農村發展研究所. 2003. 「中國農產品質量與國際競爭力」.

- 동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농·축산물 생산량에서는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과다한 농약과 저질 사료의 사용에 따른 품질 저하로 1996년 이후 국제시장 점유율이 10위권 밖에 머무르고 있음.
- 최근 중국산 농·축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 농산품 품질관리체계 강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큼.

2. 중국산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저해 요인

- 중국 농산물의 과다한 농약 및 화학비료 잔류량은 보편적인 현상인바,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대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약잔류 채소 및 과일을 먹고 중독된 사건이 빈발하고 있음.
 - 북경시 농산물시장의 채소류에 대한 최근 조사에서는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불합격된 비율은 1999년 67.0%, 2001년 51.0%, 2002년 15.4%로 낮아지고 있으나, 국가 검사기준에 의해 금지농약으로 분류된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²⁾와 오메토에이트(Omethoate)³⁾가 검출되었음.
 - 주요 수출시장이 EU인 찻잎의 경우, EU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는 2000년 7월부터 더욱 강화된 반면, 중국산 찻잎의 농약(펜발러레이트⁴⁾) 잔류량은 1997년 홍차 16.4%·녹차 27.5%에서 1998년 홍차 42.7%·녹차 37.9%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비과학적인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해 일부 농작물에서 과다한 질산염(Nitrate)이 검출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질산염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인 아(亞)질산염(Nitrite)으로 변화하는바, 최근 이루어진 京津唐(北京-天津-唐山)

2) 메타미도포스는 고독성을 함유하여 한국에서도 위해성 농약으로 등록이 보류되어 있는 제품임. 화학명은 O,S-Dimethyl phosphoramidothioate임.

3) 살충제의 일종으로, 포유동물에 대한 독성이 비교적 강하여 맹독성 농약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한국에서도 등록이 보류된 제품임.

4) Fenvalerate는 신경조직에 영향을 주는 살충제의 일종임.

지역내 170여 곳의 지하수 검사결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남.

□ 중국산 축산물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수약(獸藥) 및 중금속 등 기타 유해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사료가격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원가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낙농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음.

-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약은 항생제의 일종인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과 클렌부테롤(Clenbuterol)로 관련 수약이 다량 함유된 육류를 섭취한 소비자가 중독된 사례도 있었음.

- 중국의 일부 낙농제품에서는 공장·자동차 배기가스, 화학공장 폐기물 등에 의한 환경오염과 사료 첨가제 등의 영향으로 인해 납, 수은, 크롬, 카드뮴, 비소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음.

□ 일본, EU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을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발병지역으로 분류하여 소고기, 양고기 등 중국산 축산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있음.

- 또한, 귤나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Liberobacter asiaticum*와 Citrus canker 등과 같은 식물 전염병이 중국 남부의 일부 省에 존재하고, 일본이 중국을 *Dacus dorsalis* Hendel와 *Bactrocera cucurbitae* Coquillett의 발병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과, 딸기, 포도, 배, 복숭아, 오이, 호박, 토마토 등 일부 과일류와 채소류의 일본 및 일부 국가로의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임.

□ 중국산 농산물은 품질, 신선도, 순도, 외형상의 문제점 등 상품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밝혀짐.

- 중국산 대두의 기름산출량이 미국산 대두보다 낮고, 중국산 정제 쌀의 향기는 태국 쌀보다 떨어지며, 글루텐 강도가 약해 중국산 밀가루로는 고급 빵과 과자를 만들 수 없는 등 중국산 농·축산물의 품질은 여타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

히 떨어짐.

- 화훼, 과일, 소고기 등도 신선도와 맛 등에서 여타 국가들 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농산물에 대한 분류 및 선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순도가 낮고 크기가 균일하지 않으며 색깔이 신선하지 않고 이(異)물질이 혼합되어 있어,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외국의 같은 제품보다 저가로 수출되고 있음.
- 21세기 들어 유기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바, 미국시장 80억 달러, 독일시장 25억 달러 등 2000년 전세계 유기농산물시장 규모는 약 2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같은 해 중국의 유기농산물 매출액은 1,200만 달러에 그치는 등 아직까지도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음.

3. 농산물 품질 관리체계의 문제점

- 농산물 관리체계, 관련 법규 및 규정, 기술표준·검사·인증시스템 등의 미비가 농산물 품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식품의 품질 및 안전 문제를 다수의 정부기관이 동시에 관리하고 있어, 강력한 조정메커니즘의 부재로 인한 중복 검사 및 요금 부과 등 관리의 비효율성과 부처간 비협조 등 문제점이 상존함.
- 축산물의 경우, 농업부, 위생부, 공상행정관리총국 등이 중복 관리하고 있음.
- 중국의 농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규가 미비한바, 현행 법률의 대부분이 부문별로 입법되어 상호 연계성이 결여됨. 또한 도살 및 가공에 대한 자체 검사를 규정한 <중국 동물방역법> 등은 국제규범과 부합하지 않음.
- 농산물 품질기준도 업종별로 제ан·제정됨으로써 관련 업종과 분야간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체계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농산물 품질등급 기준, 검사방법 기준 등도 매우 취약함.

- 중국은 국제 및 선진국 표준 규범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바, 예를 들어 EU는 Diethylstilbestrol 잔류 기준치를 최고 1ppb로 제한하고 있으나 중국은 250배에 이르는 250ppb나 허용하고 있음.
 - 최근 들어 농산물에 대한 유독성 물질 잔류량 검사작업이 강화되긴 하였으나, 선진기술 및 설비 낙후, 인력 부족 등으로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작업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함.
 - 유전자변이(GMO) 수입농산물 검사와 관련한 기술표준이 부족하여 국내시장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축산물, 가공류에 대한 품질인증체계는 현재 준비단계에 있으며, 동물성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은 현재 수산물에만 적용하고 있음.
 - 중국은 이미 2,100여개 항목(국가표준 1,032개 항목, 업종표준 1,125개 항목)에 이르는 농산물 및 식품관련 표준을 제정·발표했으나, 표준으로 삼은 기술, 수량 등이 중국 농업 발전과 소비수준 향상에 따른 무공해식품,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보급 및 농산물 수출 확대와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현재 중국의 농업생산은 가족단위의 전통적인 소농(小農)방식 위주로,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의식이 낙후되어 있으며, 생산과정의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 또한, 농민에 대한 기술교육이 부족한바, 금지농약, 농약 살포와 관련된 안전의식, 사용량 등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농약 잔류에 따른 중독 사건이 빈발함.
 - 중국농업부 전국농업기술보급센터가 2개 성(省)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9%의 농민이 농약제품에 표시된 내용을 읽을 줄 모르거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사용시 농약의 독성을 고려하는 농민은 8.3%에 불과하였음.
- 중국은 농업부문의 과학기술 투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져 농업총생산액의 0.2% 내외에 불과함.

- 전세계적으로 동 비율은 평균 1% 수준이며, 일부 선진국의 경우 5% 이상에 달함.
- 농업과학기술의 투자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중복연구 및 분산된 연구시스템에 따른 비효율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4. 향후 정책 방향

- ☐ 사회과학원은 중국 농산물의 품질안전관리체계 개선과 관련, 아래와 같은 대책을 제시함.
- ☐ 우선, 농산물 품질안전관리감독의 주무 부서, 즉 농업부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 점진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비, 원활한 대내외 동·식물 검사체계를 확립하여 상호간 중복 설치를 지양하고 지방보호주의를 타파하여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 농산물 품질안전과 관련된 입법작업을 가속화하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모든 부문을 포함한 식품안전 법률체계를 조속한 시일내에 형성해야 함.
- 법률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검사 및 집행기구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농산물 안전시스템을 구축함.
- ☐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치와 검사 방법 등 품질 안전 및 표준 관련 기준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개정하여 체계적인 농산물 검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산물 품질안전관리의 신뢰도를 높여야 함.
- 농산물 등급기준을 도입하여 양질의 제품이 고가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국제규범과 일치된 농산물 품질안전표준 및 검사체계를 구축해 나감.

□ WTO의 ‘그린 박스’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동·식물 역병 예방과 치료, 우량품종 육성, 초지(草地)의 생태, 사료 안전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증가시켜 농산물 품질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이를 통해 각종 농·축산물 질병, 농약, 獸藥, 유해 물질 잔류 검사 등과 관련한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 증가추세에 있는 농산물 관련 국제무역분쟁에 대비해야 함.

□ 식량농업기구(FAO)가 규정한 역병관리 규범을 이행하여 동·식물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중국내 농·축산물 발병 피규정 지역의 숫자를 점차 감소시켜 나감.

- 이를 통해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농산물에 대한 일부 선진국들의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시켜 농산물 수출을 촉진함.

□ 해외의 기술과 시장정보를 수출기업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무역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함.

- 동시에 농민 교육과 연수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올바른 농약·화학비료 사용법 등을 보급시켜야 함.

□ 주요 농산물 수입국들과 품질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기술교류 및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표준인증제도 도입·제정을 추진함.

- 이와 함께 외국의 기술장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신속한 대책을 마련함.(***)